

청년과 금융이 통하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祝 辭

2018. 8. 29. (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이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이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금융회사가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6개 금융협회장님들과
59개 금융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고용정책을 총괄하시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에 노고를 다하고 계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곳을 찾아주신
미래의 금융인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쪼록 이번 박람회가 금융권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II. 금융의 고용여력 제고 필요성

최근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 적령기인 ‘에코세대’ 청년들은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체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등
거대한 난제도 헤쳐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산업은 약 85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유발효과*도 큼니다.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 반도체 (3.0) (자동차) 6.8 (금융업) 9.6

또한, 'IT와 금융의 융합' 등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핀테크, 빅데이터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혁신적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흡수력이 높은 청년들이 금융업에 더 활발히 진입한다면,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융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Ⅲ.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혁신 방향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시화·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산업 자체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겠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본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부문 데이터 新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제약 해소,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자체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자율과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상품·자산운용 규제 등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분야로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성장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조성, 동산금융 활성화 등
앞서 발표한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마포혁신타운 조성 등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V. 맺음말

청년 일자리 확대노력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금융이 통(通)’하여,
금융산업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면접, 상담에 그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